이달의 어항 ㊾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항

'가거도 8경'의 빼어난 절경, 소흑산도항

"가히 먹을만 하네 그려" 겨울의 별미, 가거도 감성돔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145km, 뱃길로는 233km 떨어져 있는 절해의 고도. 쾌속선으로도 4시간 30분이 걸려는 곳. 그러나 먼 뱃길조차도 부담이 되지 않아 기꺼이 찾아갈 만큼 매력적인 섬이 있다. 이달의 어항에서 소개할 여행지는 '소흑산도'로 더 잘 알려진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可居島)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위치한 소흑산도항은 197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1979년 제1차 공사에 착수한 후 2001년 기본계획을 조정했다. 폭풍 시에는 피난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방파제 480m, 접근호안 280m, 물양장 730m 등이 완공되었다. 공사비만 132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완공하는 데에는 국내 항만공사 사상 최장 기간인 28년이 걸렸다. 수산현황은 전업 74가구 195명, 겸업 18가구 121명, 지방어선 73척이 있으며, 돔, 우럭, 전복, 장어, 조기 등이 잡힌다.

♣ 주변여행지

가거도는 숲이 울창하고 해안마다 절경을 이루고 있어 그 아름다움이 홍도 못지 않다. 홍도가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여성미를 보여준다면, 가거도는 굵고 힘찬 남성미를 느끼게 한다.

가거도 관광의 진수는 홍도 33경에 비견될 정도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가거도 8경이라 할 수 있다. 가거도 8경은 독실산, 회룡산과 장군바위, 돛단바위와 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과 망부석, 구곡의 앵화와 빈주바위, 소등의 일출과 망향바위, 남문의 해상터널, 구굴도와 칼바위를 일컫는 말이다.

섬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독실산(639m)에 올라야 한다. 산세가 우람해 오를수록 웅장한 느낌을 준다. 독실산 정상의 '하늘별장'은 경찰 레이더 기지의 별칭으로 2005년부터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맑은 날에는 제주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배를 타고 선착장에서 회룡산과 장군바위 사이를 빠져나가면 녹섬, 돛단바위, 섬등반도, 납덕여, 망부석(모녀바위), 검은여(손가락바위), 개린여, 칼바위, 빈주암, 남문 등 끝없이 펼쳐지는 크고 작은 절벽과 기암괴석 행렬이 이어진다. 어선이나 낚싯배를 빌려 타는데 1인당 2~3만원씩을 받는다.

바위의 형상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형상 제각각에 이름이 붙어있고 전설과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다에선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까지 보인다.

최근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섬등반도는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의 주요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거도에서는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가거도는 국내 최고의 감성돔, 돌돔, 농어 낚시터로 통한다. 수심이 깊고 대부분 암초지대인 가거도는 우리나라 갯바위낚시 5대지역의 하나로 섬 전역이 낚시터일 만큼 방대한 포인트를 자랑한다. 1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는 50cm 이상의 감성돔이 속출, 강태공들을 흥분시킨다. 그래서 가거도를 한 번 찾은 '꾼'들은 짜릿한 손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다고 한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 잘 보존된 수중 생태계, 쾌속선 운항, 다이빙 안내 전문점과 숙박시설이 완비되어 다이버들 사이에서도 천국으로 꼽힌다.

♣ 먹거리

가거도는 5월에는 농어 · 돌돔, 여름과 가을엔 부시리, 겨울에는 감성돔 등 고급어종들을 맛볼 수 있으며 그 중 백미는 단연 남도 별미 중 최고로 꼽히는 홍어다. 소흑산도 홍어는 한 번 맛을 보면 그 톡 쏘는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적당히 숙성한 홍어와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싱싱한 미나리, 양파, 오이, 배 등을 새콤한 초고추장으로 즉석에서 무친 홍어회무침은 비빔밥과 썩 잘 어울린다.

♣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광산IC→나주(이상 13번 국도) → 무안 →목포항여객터미널(이상 1번 국도)→가거도(4시간 30분 소요)